

발표 1.

시설치매노인의 문제행동 사정도구개발

김 경 애
서울대학교 강사

시설거주 치매노인의 80~90%에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치매노인뿐만 아니라 간호제공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간호의 질을 저하시킨다.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간호중재를 제공하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문제행동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를 우리나라 노인에게 적용할 경우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일부 항목만 나타나는 제한점이 있어서 우리나라 노인의 실정에 맞는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문헌고찰과 현장연구를 종합·분석하여 치매 문제행동을 ‘치매로 인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노인 자신이나 타인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간호제공자의 중재나 감독이 요구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행동적, 기능적, 정신적 차원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된 25개 문항의 치매 문제 행동 사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각 영역에 따른 문항수와 문항 요약은 다음과 같다: 공격성(6)- 신체적 폭력, 자해, 기물 훼손, 화냄/욕함, 고함/큰소리, 무시하는 말; 초조성(6) - 배회, 반복 행동, 반복 질문, 소음 발생, 불평, 모으기/숨기기; 간호에 대한 저항(5)- 투약 거부, 의복 간호 저항, 용변 간호 저항, 목욕 저항, 고집; 신체 증상(3)- 수면 방해, 식탐/이식, 부적절한 성 표현; 신경 증상(3) - 무관심, 안절부절 못함, 낯설어 함; 정신과적 증상(2)- 환각, 의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은 본 도구의 특성상 구성타당도나 내적일관성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내용타당도와 동시타당도 및 평가자간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4인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얻은 내용타당도 지수는 0.88이었고, K-NPI와의 동시타당도는 Pearson 상관계수가 0.83 ($p=0.001$)이었고, 10쌍의 평가자간 신뢰도는 평균 0.84($p<0.001$)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도구임이 검증되었고 간호보조요원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경우 자료수집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도구의 특성은 첫째, 약물이나 비약물적 중재로 변화가 불가능한 인지장애나 신체 기능저하는 제외하고 이런 장애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행동만을 포함하였고, 둘째, 현장연구를 통해 간호제공자가 돌보기 힘들다고 느끼는 행동들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셋째,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용어로 표현하였으며, 넷째 발생 빈도가 낮은 항목들은 한

문항으로 축소하거나 제외하여 도구의 간결성을 높였고, 문제행동의 발생 빈도 뿐만 아니라 힘든 정도도 함께 평가하여 각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개발된 도구를 요양시설의 간호제공자 39명을 대상으로 103명의 치매 노인에 대한 행동을 평가하게 하였을 때, 발생율이 가장 높은 행동은 '무관심'으로 74%의 대상자들에게서 나타났으나 힘든 정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치매 노인에게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간호보조요원을 적절히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발생율이 '1' 이상인 대상자만을 유효사례로 빈도와 힘든 정도를 분석하였을 때, 평균 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들은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속성을 보이는 초조성에 속하는 행동들이고, 힘든 정도가 높다고 평가된 항목들은 간호에 대한 저항이나 예방을 위해 억제대를 적용하는 행동들이었다.

의복에 대한 저항이나 수면 방해, 기저귀를 빼내려고 하거나 안차려고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노인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간호에 대한 저항이 힘든 정도가 높게 평가된 것은 우리나라 치매 간호 현실이 대상자 중심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제공자 중심이라는 것을 시사하므로 차후에는 치매노인의 입장에서 욕구를 파악하고 개별적인 간호를 제공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용어 : 치매 노인, 문제 행동, 도구 개발, 간호에 대한 저항